

참고

2024년도 복합지원 주요 통계

① 연계자 수: '23년 대비 71.2%(+32,606명) 증가

* [금융-고용] '24.3월 신규 도입 / [금융-복지] '18.7월 既 도입

【표1】 금융-고용·복지 연계자 수(명)

'23년	'23년 계	1Q	2Q	3Q	4Q
고용	3,218 ('23.6월 연계 개시)	-	10	874	2,334
복지	42,555 ('18.7월 연계 개시)	9,871	14,201	9,046	9,437
합계	45,773	9,871	14,211	9,920	11,771



'24년	'24년 계	1Q	2Q	3Q	4Q
고용	19,877 (+16,659, +517%)	2,316	5,475	5,444	6,642
복지	58,502 (+15,947, +37%)	12,754	11,667	17,018	17,063
합계	78,379 (+32,606, +71%)	15,070	17,142	22,462	23,705

② 연계 대상자: 고용·소득 취약계층에게 보다 집중적인 지원

* [금융-고용] 무직·비정규직 비율 +27%p, 저소득층 비율 +8%p

[금융-복지] 무직·비정규직 비율 + 6%p, 저소득층 비율 유사(77%의 높은 수준 유지)

【표2】 금융-고용·복지 연계자 중 취약계층 비중

구분	무직·비정규직 비율		저소득자 비율	
	복합지원 前*	복합지원 後*	복합지원 前*	복합지원 後*
금융-고용	56% (1,298명)	83% (14,530명)	75% (1,734명)	83% (14,602명)
금융-복지	62% (15,258명)	68% (23,272명)	78% (18,955명)	77% (26,191명)

* [금융-고용] '24.3월말 본격 개시 ☞ '24.1~3월을 복합지원 前, '24.4~12월을 복합지원 後로 분류
[금융-복지] '24.6월말 본격 개시 ☞ '24.1~6월을 복합지원 前, '24.7~12월을 복합지원 後로 분류

③ 정책 실효성: 이용자의 금융여건 개선에 가시적인 기여

【표3】 복합지원 이용자 금융여건 변화 ('24년 말 기준)

구분	복합지원 非연계자	복합지원 연계자		
	금융지원만 받은 자	금융-고용	금융-복지	금융-고용-복지
이용자 고금리대부잔액 감소율*	△10.9%	△13.3%	△10.8%	△11.4%
3회 이상 연체자 비중	8.0%	2.7%	6.8%	2.8%
채무조정 실효자** 비중	3.1%	0.7%	2.4%	0.7%

* 지원 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대상으로 지원시와 '24년 말을 비교한 보유 대부잔액(18%↑ 금리)

** 변제 계획 3개월 이상 미이행 등의 사유로 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자

④ 정책 만족도: 이용자 대다수가 높은 만족도 표시(2,222명 대상 설문조사)

【표4】 복합지원 이용자 만족도, 재이용 의사(명)

구분	매우 긍정	긍정	보통	부정	매우 부정
정책 만족도	1,145 (51.5%)	660 (29.7%)	336 (15.1%)	53 (2.4%)	28 (1.3%)
재이용 의사	1,321 (59.5%)	702 (31.6%)	165 (7.4%)	22 (1.0%)	12 (0.5%)